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0. 4월

Vol.2

ISSN 2713-9387

# 모음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 I 특집기획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문화지원정책

5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 I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16 1. 문화예술 :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EU, 멕시코, 태국

19 2. 문화산업 :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21 3. 문화재 : 폴란드, 터키

22 4. 체육 : 터키, 벨기에, 태국

23 5. 관광 :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 I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26 1. 오스트리아가 신설한 예술문화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 발표

30 2. 한국의 소프트파워, 한류문화를 선두로 부상

34 3. 코로나 팬데믹 현실화되면 '세계 GDP 1조 증발'

## IV 이달의 담론 |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새로운 문화 소통을 생각하다

## 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4월 활동계획

# IV

## 이달의 담론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새로운 문화 소통을  
생각하다

## 이달의 담론

#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새로운 문화 소통을 생각하다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여러 영역에 걸쳐 크게 활성화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양국 정상은 2020년을 상호교류의 해로 선언했고 또 어느 때보다 풍성한 교류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지구적 차원의 초 불확실성 속으로 내몰린 현 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양국관계의 특별한 한 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한국과 러시아 여러 도시에서 열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계획이 뒤로 밀려나면서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의 개시 시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갖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화 교류가 양국 관계 활성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잠재력의 실현 방안 등을 파악하고 탐색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 교류 역사의 특징적 흐름을 개괄하고, 30년 동안 축적된 문화예술 교류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한 다음, 미래 지향적 협력 방향과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입장 등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 1. 다시 만난 오랜 이웃, 러시아

두만강을 경계로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오래전에는 육로로 접근 가능한 이웃 나라였다. 양국 간 직접적 교류가 지속해서 이어지지 못했지만, 약 150년 전 한반도 최북단 지역 거주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 땅으로 이주했고, 구한말 열강이 각축을 벌이던 시절 한반도로 러시아 문물이 활발하게 유입된 적도 있었다. 양국 사이의 사회 문화 교류를 조망한 두 권의 책 『사바틴에서 푸시킨까지: 한국 속 러시아 발자취 150년』과 『포시에트에서 아르바트까지: 러시아 속 한국 발자취 150년』은 사람의 이동, 상대국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 교류와 그 영향, 양 국민의 상호 인식 변화 등을 다루면서 양자 간에 꽤 흥미로운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 나라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를 매개로 탄생한 극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는 가까운

이웃 나라인 것이다. 비자 없이 두 시간 남짓 비행기로 이동하면 도착하는 블라디보스토크가 몇 해 전부터 한국 관광객들의 인기 여행지로 떠오른 것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북방과의 인연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두 나라 국민이 직접 영향을 주고받던 관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크게 위축되었고, 해방 후 분단 공간에서 러시아(소련)는 한국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갈 수 없는 땅일 뿐 아니라 언급조차 불가능한 금기의 대상이었다. 그런 ‘무서운’ 나라 소련과 러시아인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일이다. 우리 북방정책과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서로 조응하면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치솟았고 한국을 찾은 러시아 공연단과 저명 예술가, 러시아 거주 우리 동포들의 방한 관련 보도가 연일 주요 일간지의 앞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전국 주요 대학들은 러시아 관련 학과를 앞다투며 개설했다. 허나, 당시 체제 전환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 놓여있던 러시아는 우리의 열렬한 관심에 호응할 여유가 없었다. 그즈음 모스크바를 찾았던 한국인 대다수에게 이 나라는 부패와 혼란이 난무하는 땅으로 각인되었고, 러시아를 향하던 우리의 일방적 기대와 희망은 곧 회의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그 사이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되었고,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 협력도 다변화되고 있다. 2014년 단기체류 비자면제협정 체결 이후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 국민 숫자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양국 간 매년 50만 명 이상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이 숫자를 100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호는, 우리 젊은이들 다수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극동 지역 여행을 즐기고 있고, 러시아 청소년 사이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K-drama, K-pop, K-beauty 등으로 확장된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는 K-food 등의 영역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그 덕분에 한국어 학습자 숫자가 러시아 전역에서 크게 늘고 있다. 포항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한·러 지방정부 협력포럼’처럼 기존의 수도 중심의 교류 방식이 지방 대 지방 교류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쪽의 일방적 관심이나 독백형 교류의 틀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협업의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러시아와 문화예술 교류 30년, 그 성과와 한계

수교 후 한·러 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양자 간 교류의 활력은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침했다. 소위 말하는 ‘북방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고조될 때 러시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시야의 주변으로 밀려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 교류 역시 양국 공통의 목표, 양 국민의 관심 수준, 문화예술 교류의 세계적 추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양국 정부 간 교류의 장식품 역할을 하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교 몇 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끝나면 잊어버리는 식이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며,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 해당 분야 파트너들이 서로 상대방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감대와 노하우가 아직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우처럼 오랜 단절 후 다시 만난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상호 교류의 경험, 상대방을 향한 호감과 관심 수준, 양측의 문화예술에 공히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분야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단계별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지금,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매개로, 자신과 타자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예술 장르에서 이미 축적된 호혜적 협력 성과들을 모델로 삼아 인접 또는 기타 영역으로 이 같은 사례들을 확산시키는 일에 가속도를 내기에도 좋은 시기이다. 과거에는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로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현재는 우리 대중문화, 의료관광, 한국어와 한국 음식 등의 치솟는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공비행 중이다. 극동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일정 부분 한국과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극동 시베리아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도 양국 협력을 견인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세계 유명 관광지를 두루 섭렵한 한국의 여행자들에게도 러시아는 꼭 가봐야 할 ‘마지막’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 연구자라면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가장 가까운 유럽,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여행사 광고 문구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연상되는 광활한 공간에 대한 매력 등이 러시아를 가까운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근에 러시아 여행을 통해 발견한, 과거와 다른 변화하는 러시아의 모습은

우리의 고정된 시각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과 러시아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 루트가 늘면서 상대국 방문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부터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와 모스크바 프치옴연구소가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 국민 상호인식수준 조사 결과를 보면, 두 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상대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밝히고 있고 '가족과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등의 정서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에서 양국 간 교류 활성화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 3. 새로운 문화 소통을 위한 과제

그러면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빛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질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우선은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역사가 30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세기 반에 걸쳐 훨씬 긴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최근 30년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보고 미래 협력 비전을 설정한 다음, 러시아 측과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 국민 사이의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 문화예술의 수용과 상호 영향, 상대국을 향한 관심과 사랑 등과 같은 자산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국악계의 거목 고 황병기 선생은 부산 피난 시절 LP로 러시아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우연히 접한 후, 우리 전통 음악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남긴 바 있다. 현대 음악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지명한 러시아 작곡가의 예술 세계와 황병기 선생의 음악 정신 둘 다에 정통한 전문가라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 같은 진정한 문화 소통의 수많은 사례들은 올 한 해를 넘어 오래오래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친구로 여기고 우정을 쌓고자 하는 러시아 문화계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러시아 문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인사들은 과연 누구이고, 러시아 문화부 외에 어떤 기관들이 대외 문화예술 교류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 각 기관들이 어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도 궁금하다. 러시아 측 인사들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소통도 힘들다는 푸념은 과거에나 해당하는 얘기다. 자신들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러시아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일을 외교 및 문화 정책의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 정부가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략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나이다. 대문호 톨스토이의 후손으로 푸틴 대통령의 문화 담당 보좌관으로 활동 중인 블라디미르 톨스토이나 문화부 장관 역임 후 대외문화교류를 총괄하는 대통령 특별대표로 활약하는 미하일 슈비드코이 등 지한파 인사들과의 협력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자신들이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 의해 '포위된 요새'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지도부가 현재 애국주의적 정서를 상당히 강조하는 문화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0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이 되는 해로, 전 세계를 위협하던 나치 세력을 물리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러시아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한 해를 가득 장식할 예정이다. 금년의 한-러 상호교류 행사 또한 '기억과 영광의 해'로 명명된 2020년의 애국주의적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는 우리 여행자들이 그 지역 소재 독립 운동 관련 유적지를 둘러보듯이, 러일 전쟁 당시 제물포 해전을 기념하는 인천 연안 부두의 바라그 호 추모비와 같은 러시아 근현대사와 연관된 기념 공간이나 건축물 등이 러시아인들 대상의 애국 투어 방문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메시지의 일방적 발신이 아닌, 러시아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하면서 대화하는 소통형 문화예술 교류로의 전환이 필요한 셈이다.

성공적 상호교류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도 중요할 것이다. 앞에서 수교 이후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체제변환기의 러시아 상황 때문에 일방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측의 한국을 향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측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학술 문화 교류 등에서 나름의 중요성을 갖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주한러시아대사관, 국내 거주 러시아인 커뮤니티, 한국의 러시아 전문가 집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에서 문화예술 교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양국 국민이 상대국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현황도 살펴보자. 19세기 및 20세기 러시아 고전문학의 대표작들은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현대 문학의 한국어 번역 소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대조적으로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은 현대 작가에 지나치게 쏠려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최대 궁극증은 우수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예술성 높은 음악,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K-pop과 K-drama 너머의 한국 고유 정신세계와 정체성이다. 러시아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서적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모스크바 시내 주요 서점의 외국 관련 코너에 진열된 한국 관련 도서라고 해야 단어장 수준의 사전, 한국어 학습서, K-pop 스타들의 노래 가사집, 외국어에서 번역한 한국 관광안내서 등이 고작이다. 러시아 출판 시장과 현지 한국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고전과 학술 도서 출판에는 우리 측의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적 콘텐츠는 대부분 정부의 관여나 지원이 없을 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관련 학술 도서나 우리 고전문학의 번역 등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 또 하나 답답한 것은, 유튜브 상에 떠도는 한국 관련 동영상은 넘쳐 나지만 정작 우리 문화예술 전통, 그리고 한국의 삶을 잔잔하게 조명하는 콘텐츠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러시아와 공동으로 두 나라의 문화 전통이나 정신세계, 그리고 일상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루는 다큐 시리즈 제작 계획도 세워볼 만하다. 이런 프로젝트는 양국 대학의 영화전공 학생들의 참여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호교류의 해에 펼치는 활동의 일환으로 양국 문화부의 주도하에 산하 예술교육 전문 교육기관들 사이의 교류 협력이 크게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고 싶다. 음악, 연극, 영화, 발레, 미술, 건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우수교육기관 사이의 협력은 양국 문화예술 교류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쌍방향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서로 배울 점이 있겠지만, 특히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체계적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적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시작되었다. 지난 30년 동안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두 나라는 상대국의 사회적·역사적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공존과 상생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소통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